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혹시나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혹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문헌의 첫 기록	수록 용례	수록 내용
20세기	3개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혹시나'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혹시’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혹시나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혹시나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혹시나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혹시나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혹시나

혹시나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말의 구성과 어원

‘혹시나’는 20세기부터 ‘혹시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혹시나’는 부사 ‘혹시’에 보조사 ‘이나’가 결합한 것이다.

문헌 속의 혹시나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혹시나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혹시나

출처 1920 동아일보 4월 18일 3면 용례 01

문헌 용례

의례히 이사할 만한 사람도 혹시나 좀 써러지지나 아니할가 하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9 생육신전 52 용례 02

문헌 용례

안평대군은 아즉 우의정 김종서가 죽지 아니한 줄로 알고 혹시나 자긔를 구원하야 줄가 하는 긔대를 가진 것이다.

현대어 풀이

안평대군은 아직 우의정 김종서가 죽지 않은 줄로 알고 혹시나 자기를 구원하여 줄까 하는 기대를 가진 것이다.

출처 1940 조선일보 6월 21일 3면 용례 03

문헌 용례

어제까지도 날씨는 꾸물꾸물 거리어서 혹시나 비가 나리지 안흘까? 생각하고 잇섯는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혹시나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혹시나의 뜻과 역사